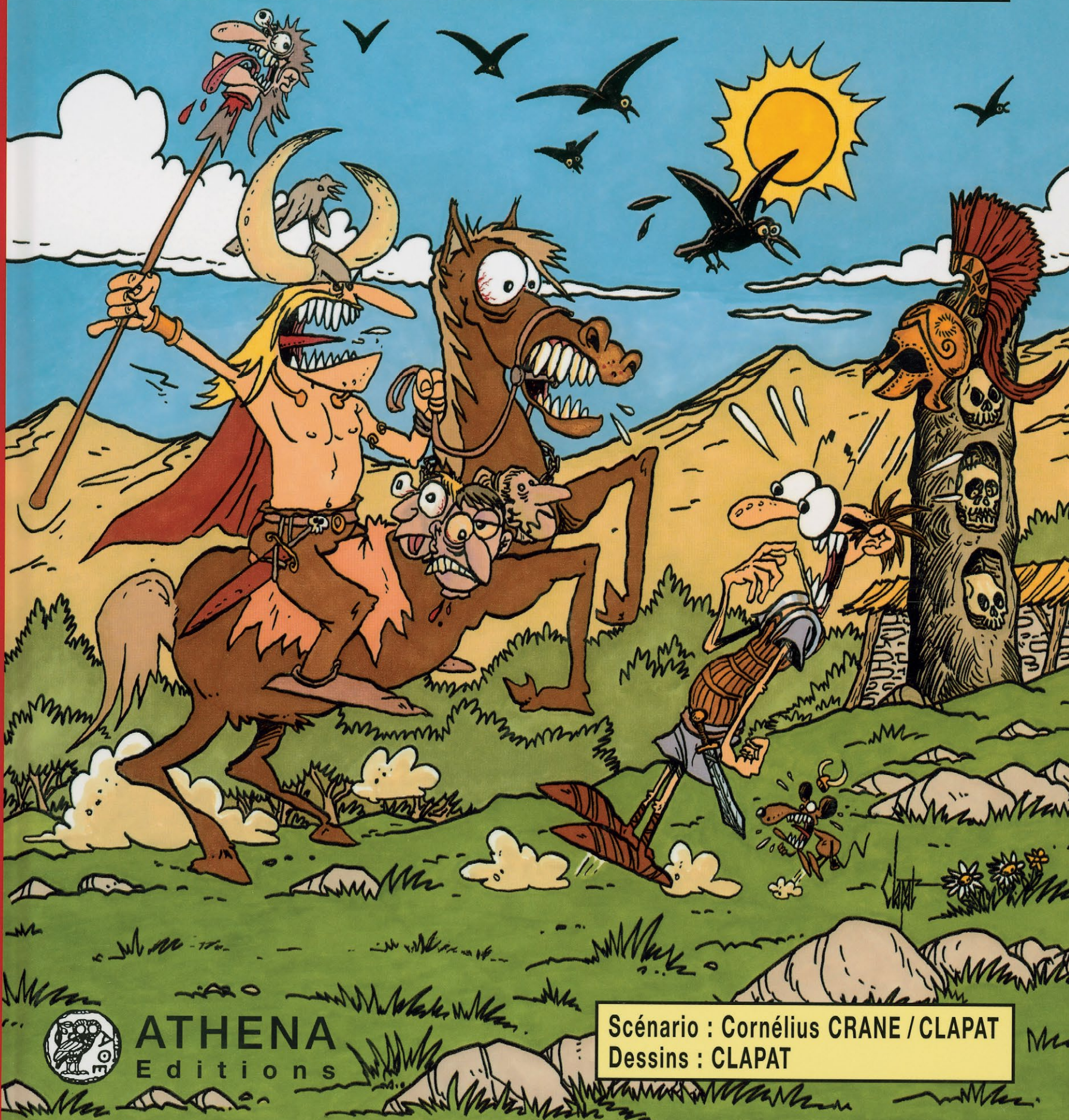


골족의 나라에 간 알시비아드

디다스코 1



ATHENA
Editions

Scénario : Cornélius CRANE / CLAPAT
Dessins : CLAPAT

알시비아드 디다스코의 기상천외한 모험 시리즈

17권이 나와 있습니다. 알시비아드 디다스코 시리즈는 한 권씩 따로 읽어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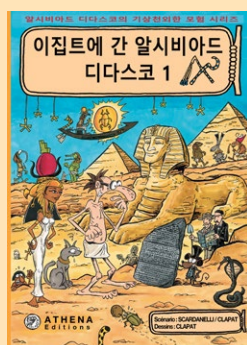
ISBN : 2-913314-16-3
Code : 9782913314160



ISBN : 2-913314-15-5
Code : 9782913314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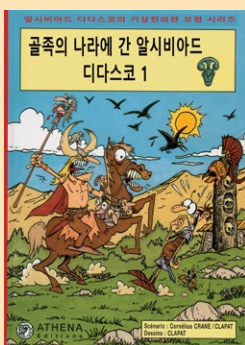
ISBN : 2-913314-17-1
Code : 9782913314177



ISBN : 2-913314-09-0
Code : 9782913314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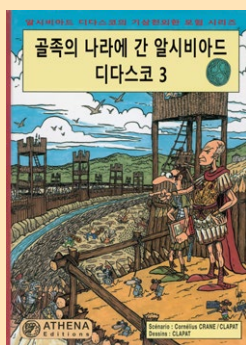
ISBN : 2-913314-10-4
Code : 9782913314108



ISBN : 2-9501341-9-X
Code : 9782950134196



ISBN : 2-913314-00-7
Code : 9782913314009



ISBN : 2-913314-01-5
Code : 9782913314016



ISBN : 2-913314-02-3
Code : 9782913314023



ISBN : 2-913314-03-1
Code : 9782913314030



ISBN : 2-913314-06-6
Code : 9782913314061



ISBN : 2-913314-07-4
Code : 9782913314078



ISBN : 2-913314-04-X
Code : 9782913314047



ISBN : 2-913314-05-8
Code : 9782913314054



ISBN : 2-913314-12-0
Code : 9782913314122



ISBN : 2-913314-13-9
Code : 9782913314139



ISBN : 2-913314-14-7
Code : 9782913314146



ISBN : 2-913314-22-8
Code : 9782913314221



2016년 10월 출간 예정

**교육 만화책에 담은
고대사 이야기 !**

**알시비아드 디다스코와 함께
역사를 더 쉽게 배우세요.**

유머, 역사만을 향한 한결 같은 마음이 담긴
우리 시리즈는 이미 전문가들과 교사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240*340mm 판형. 내지 150g.
64쪽. 실 제본. 표지 270g.
하드 커버. 정가 19유로.**

군대는 드루이드 승과 음유시인이 없는 한 작전을 수행하는 일이 없었다. 종종 결정적인 교전이 있기도 전 양쪽 진영 사이로 드루이드 승이 나타나 화합의 노래를 부르며 동족 간의 전쟁을 저지하곤 했다.



이와 반대로 예전엔 드루이드 승이 장광설이나 제스처로 적의 심기를 뒤흔기도 했었다.



어떤 음유시인들은 신통방통한 힘이 있어서 자장가를 연주할 때 전투 태세를 갖춘 부대 전체를 잠들게 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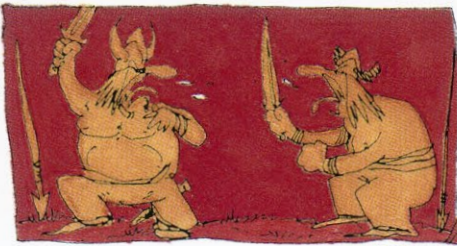


전사들이 전장 저편에 나타나 무기를 흔들면서 상대편을 도발하기도 했다. 도발에 응할 경우 전사들은 그들의 조상과 그 업적을 기리는 노래를 부르고 적들을 향해 농담과 시비를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투는 시작되지 않는다.

외치자! 고래고래!
노래하자! 무기를 맞부딪치자!
전쟁의 나팔을 높이 울리자!



전투는 커다란 두 덩어리의 격돌이었다. 오로지 신체적 우세나 우연, 신의 심판이 가져다 줄 승리만을 기다리며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귀청 찢어지는 소리를 내서 저 놈들 혼을 빼 놓자! 하카를 하자!

허수아비 같은 녀석! 진정한 소리가 뭔지 내가 보여주마!



전사들 가운데 별난 체급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신에게 헌신되었는지 불들린 건지 전열의 선두에 선...



... 털복숭이 야수. 춤추는 인상파 미치광이 아니면 난쟁이들이라 상대를 겁주는 데는 최고야...



전쟁터에서도 마법은 있었으니까... 아, 옛날이야! 그 시절 우리는 정말 잘 놀았는데...



이제 네 차례! 자, 나가서 메두사 같은 네 머리의 진가를 보여줘봐!

으... 아시다시피 저는 그런 피스라세요... 그냥 소리나 한번 더 질러 보시는 게 어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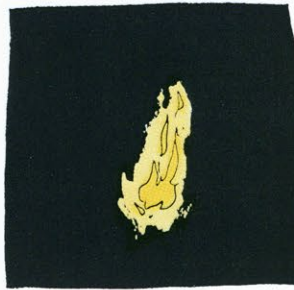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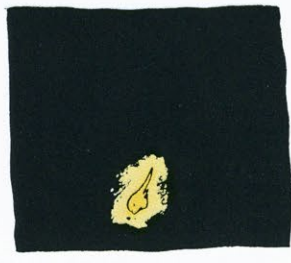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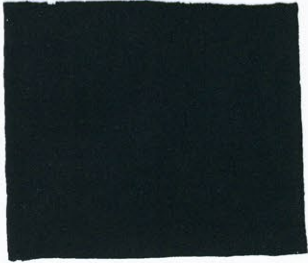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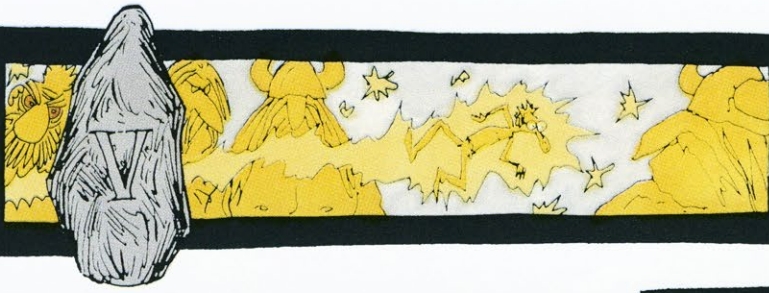
악아빠진 일러스트 같으니.. 도대체 뭘 하라는 거지? 말도 안 돼!

어머넌! 아드레날린이 점점 차오르는군!



신들과 사자들

켈트 족의 법에 따르면 신들의 힘과 의지가 없다면 인간에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갈리아 족의 신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건 불가능한 일. 확실한 건 신들이 눈에 보이는 실제보다는 정신적으로 사랑 받는 존재라는 거지. 像(상)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건 신을 떠올리게 하는 나무나 돌기둥이었을 뿐...



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었어. 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 신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야.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유로 갈리아인들은 신을 위한 신전을 짓지 않았어.



신은 인간이 아름다움과 자연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곳에 사는 거야.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인간에게 열정을 불러준다는 신인동형론은 갈리아와 로마 시대엔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어.



학자들은 저마다의 이론을 만들어 수많은 신성에 도달했고 그래서 부족마다 다른 신의 이름을 갖게 된 거야. 아무것도 만들지 않은 부족은 없었어.

세상에! 멀티 콘센트! 이게 무슨 신이람? 앞에 가서 보고 싶은데 대체 어디가 앞인지...

머리가, 아니 얼굴 셋 달린 신. 삼신. 켈트 족들한테는 3이라는 숫자가 중요했나보군.



드루이드 승이 글 쓰는 걸 금지했으므로 켈트 족의 종교에 대해선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아. 그리스와 로마 작가들이 남긴 글만이 유일한 단서. 이를 통해 갈리아인들의 종교에 대한 로마적 해석을 알 수 있을 뿐이야.



가끔 나는 테우타테스 신의 상징이었다우.

그리스 단어는 골치 아프다!

힘을 상징하는 나는 아주 오래 전부터 갈리아인들의 상징이었지.

나는 테우타테스. 모든 예술을 발명했지. 도로와 여행가를 수호하는 내 덕분에 상업이 발달한 거야.



카이사르는 이렇게 썼어. 갈리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테우타테스라고. 로마인들은 그걸 메르쿠리우스라고 부르렀지만 가끔 화성과 동일시 했지.



전설에 따르면 테우타테스는 섬에 묶였었다...

타르타로스에 묶인 크로노스처럼... 로마인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마실리아

« 환영하는 주인 » 유세노스와 « 손님에게 가장 친절한 여자 » 아리스토텐나와의 만남과 마실리아 또는 마살리아의 건립을 보게 되는 곳.

그리스 군대가 세운 꾀말을 따라 포세아에 인들은 이탈리아의 해안을 따라 가다가 리구리아 인들의 알려지지 않은 땅에 도달했다.



카르타고 인들 못지않게 무서운 바다의 달리기 선수 에트루리아 인들이 이미 땅을 차지했으니 더 밀려나는 건 당연했지.



여긴 사시 사철 온화하고 하늘은 늘 청명하고 바다엔 물고기가 넘쳐나고 땅은 비옥해.

우리 포세아에 인들은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곳을 찾고 있어. 여긴 정말 마음에 들어... 이해 하지? 우리가 여기 있어도 될까?

포세아에 인들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농친 기회를 만회하기로 결심했지. 그러곤 포카리아 방향으로 배를 돌렸어.



가버린다. 저들이 정말로 원한 게 뭐였지 ...



장담합니다. 거기야 말로 우리가 찾던 데라구요. 거기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거요. 우리랑 같이 하겠소?

이 결심은 심각한 중요성과 위험을 담고 있었지. 그래서 포세아에 이들에게 신들의 가호가 필요해졌어. 신력에 따라 아르테미스를 찾아가니 아르테미스는 새로운 나라로 이끌어줄 길을 알려주었지.



원정대장이 누군지 알지?

그럼. 시모스와 프로티스라구.

새로운 도시 국가 건설 대장으로 임명된 프로티스는 포세아에서 손꼽히는 장사꾼 집안 출신이었어.



어서들 오시게! 나는 마노스 왕이오. 오늘 우리 딸을 결혼시킬 거요. 당신들을 초대하오!

어, 우리랑 같은 말을 하네. 우리 말고 다른 그리스인들을 만난 적 있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세고브리게스 부족의 나라에 오게 된 거야. 총각 리구리아 부족장들은 전부 짐시들처럼 힘 쓰는 일을 했어. 프로티스의 사위감으로 선발되려고 말이야.

오, 그리스 사람도 일 좀 하리지. 다들 알하는 거 안 보이냐?

미디 지방 사람들은 꽤 친절하군. 심지어 우리도 초대했잖아.

그리스인들의 섬세함이란! 리구리아 남자와 결혼만 안 했어도 내가...



참 기쁜 날이로구나!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사이좋게 식사를 나누다니. 난 포세아에 인들이 마음에 드는구나. 이 그리스인들은 머리가 좋아.

자, 딸라. 이제 네가 너의 남편이자 나의 사위를 고를 차례다!



과연 그녀는 누구에게 이 순수한 물이 담긴 컵을 줄 것인가... 그나저나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내가 왕족이 된다구...?

갈리아 인들은 새의 비행을 예측하는 데 탁월하다. 때가 되자 신탁은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찾았다는 걸 알려주었다...



세고베즈 너는 동쪽! 벨로베즈 너는 남쪽! 볼크, 보이앙, 아르베른, 게농, 에두앵, 암바레스, 오레르크, 카르누트 모두 너희들을 위해 모였다! 이들을 전부 다스리게 된 것을 영광을 알고 나를 영예롭게 하라!



실제 원정보다 준비하는 게 더 길군. 내가 아는 세상 정복은 약탈, 물, 금, 여인네, 싸움인데 말이야. 그거야말로 참된 인생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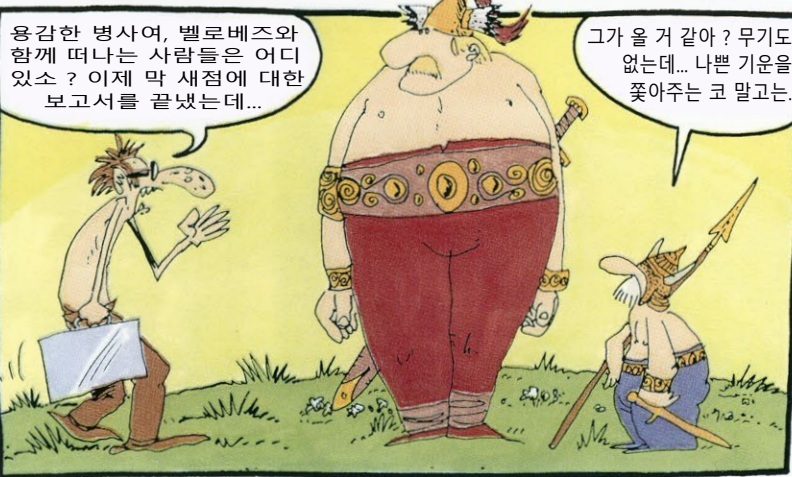


세 부족은 서쪽으로 네번째 부족은 북쪽으로 향했어. 세상의 사방을 향해 켈트 족은 땅을 차지했던 거야!



자, 다들 준비 된 건가?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어. 이제 좀 뛰어어야겠어.

용감한 병사여, 벨로베즈와 함께 떠나는 사람들은 어디 있소? 이제 막 새점에 대한 보고서를 끝냈는데...



그가 올 거 같아? 무기도 없는데... 나쁜 기운을 쫓아주는 코 말고는.

그 잠든 단두인을 데려와. 그 어리바리는 내가 말지. 깨어날 시간이 왔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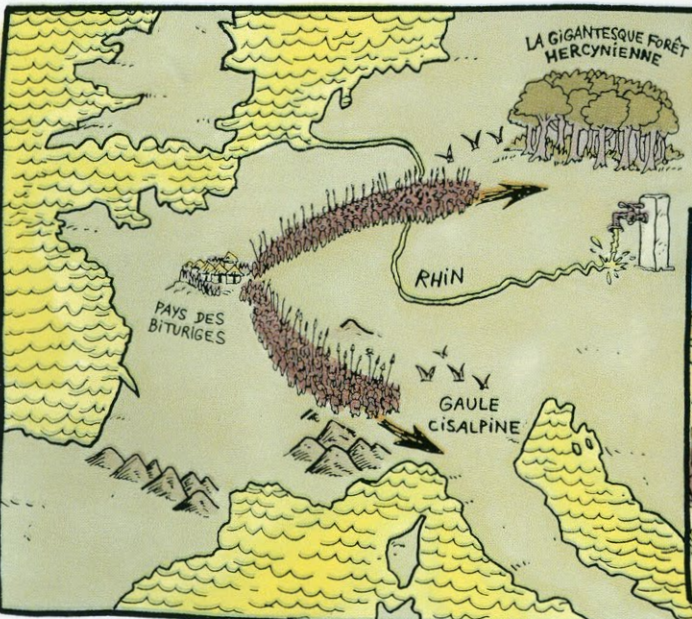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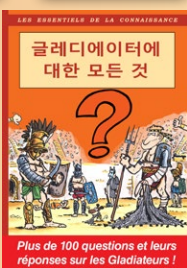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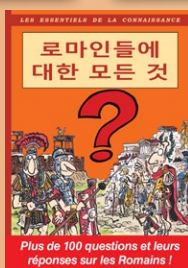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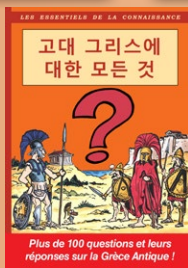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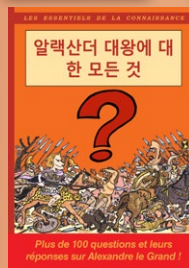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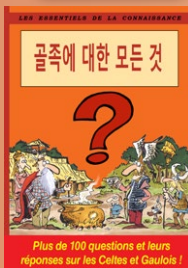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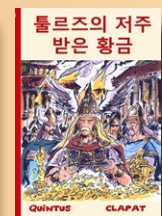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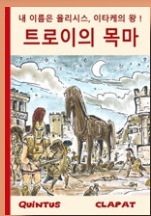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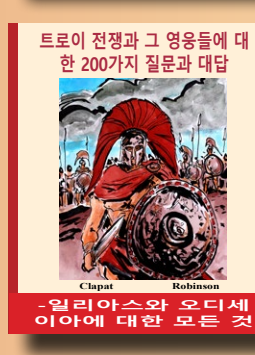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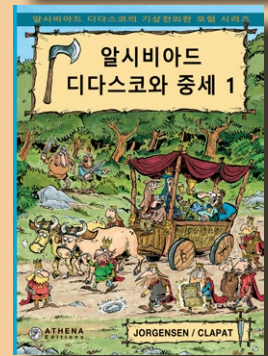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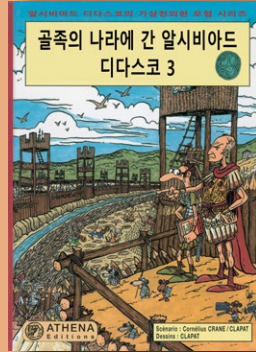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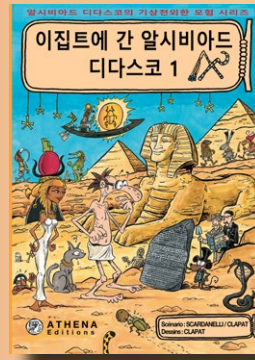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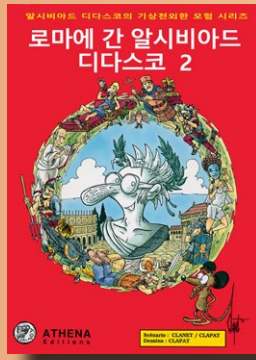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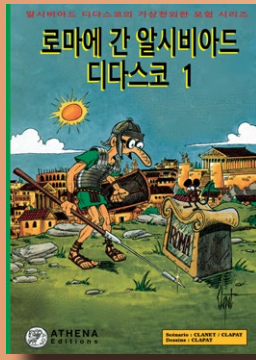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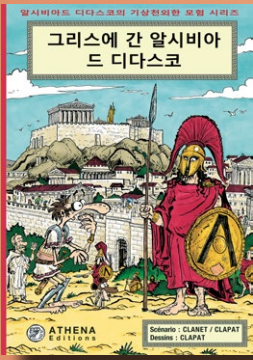
그런 차림이 훨씬 나아보인다는 거 알아? 투구도 안 썼는데 무척 무서워보이는군... 정말 대단한 코야!

어쨌거나 저 놈도 코가 커. 이 만화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 같아.



두 원정대는 길을 떠났다. 세고베즈는 고생대 석탄기 숲과 다뉴브 계곡에 도달했다. 벨로베즈는 미디 지방을 지나 이탈리아에 도착했다. 켈트 족은 돌아올 거란 희망 없이 떠났다. 병사들의 원정은 무엇보다 이주라 부를 수 있는 거였다. 정복자들은 약탈을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땅을 찾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떠났다. 수레, 여자, 아이... 모두가 함께한 민족의 이동이었다... 갈리아 인들은 남쪽 땅이 비옥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다. 상인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었다.





아테나 출판사



ATHENA Editions - 10, rue du Berry - 31 130 BALMA - FRANCE
www.athena-editions.fr - athena.editions@wanadoo.fr